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지역문화콘텐츠 제안

고순희**

<차 례>

1. 머리말
2. 안동의 지역성
 - 1) 규방가사 창작의 중심지
 - 2) 독립운동의 메카
3.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4. 맺음말 : 지역문화콘텐츠 제안

<국문초록>

최근 소개된 13편의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가운데 안동에서 창작한 작품이 7편이나 된다. 이 점은 안동의 지역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연구는 안동의 지역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지역문화콘텐츠로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안동의 지역성을 살폈다. 첫째, 안동은 규방가사 창작의 중심지였다. 필사본 규방가사 자료가 가장 많이 수집된 지역은 안동으로 나타난다. 안동 여성은 가사 창작을 일상생활문화의 하나로 지니고 있었다. 둘째, 안동은 독립운동의 메카였다. 안동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특히 경술국치 후 안동유림은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안동유림은 만주로 망명할 때 문중 전체를, 특히 여성을 동반해 갔다.

다음으로 안동 여성이 창작한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을 살폈다. <위모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K-2012-0496).

** 부경대학교

사>, <간운사>, <조손별서>, <눈물뿌린이별가>와 <송교행>, <답사친가> 등의 작가는 모두 안동 명문대가에 속한 여성이었다. 이들 작가는 자신의 문중이 만주 독립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그것을 가사로 표현했다. 이들이 쓴 가사에는 고국을 떠나는 처참한 심경, 고국에 있는 부모·형제·동기에 대한 그리움, 만주에 가 있는 딸·친정식구 등에 대한 그리움, 나라를 빼앗긴 울분, 자신이나 육친이 만주로 망명하기까지의 과정, 만주생활, 독립운동의지의 고취 등이 서술되어 있다.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의 창작은 안동의 두 가지 지역성이 작용한 결과였다. 즉 안동이 규방가사 창작의 중심지였다는 점과 안동이 독립운동의 메카라는 점이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가사는 안동의 지역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주는 훌륭한 지역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들 여성도 양반가 문중의 일원이었으므로 이들의 가사창작문화도 양반문화에 편입되어야 한다.

핵심어 : 안동, 지역성, 가사, 만주망명, 선비정신, 독립운동, 지역문화콘텐츠

1. 머리말

지역학은 각 지역의 언어를 토대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어문학,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그 지역의 독자성과 일반성을 찾아내고 해당지역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학문이다. 지역학은 본질적으로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향하여 ‘문화와 역사의 상대주의’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대상지역을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학에서 해당지역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각 분과학문 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¹⁾. 그 동안 지역학은

역사학, 철학, 문학, 예술, 민속학 등 각 분과 학문에서 한국인은 물론 해당 지역민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연구 성과가 집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학 연구는 지역문화축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지역문화축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학의 활발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각 학문의 연구성과를 통합하는 학문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안동의 정체성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퇴계, 선비정신, 명문대가’ 등 양반문화와 관련한 것이다²⁾. 양반문화와 관련한 안동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철학과 사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근대 변혁기에 안동지역의 독립운동은 철학과 사학에서 규명한 안동의 지역적 정체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국문학계에서는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1) 이철원, 「지역학의 개념과 현재성」,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6, 4~5쪽.

2) 최근 들어 양반의 고장으로 안동의 정체성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는 한때 신분제 철폐가 당연한 최대과제였던 시기가 있었고, 우리의 역사·사회·경제·문화 등 각 부문에서 근대성을 찾고자 했던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반은 타도대상이나 성장하는 서민의 힘을 방해하는 봉건적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철학과 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집적됨에 따라 선비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고, 양반명문가의 역사적 역할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희생정신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양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안동의 양반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각 마을 명문대가의 내력, 인물, 종택의 구조, 종부의 생활문화 등을 소개하는 대중서가 봇물 터지듯 출간된 것은 이러한 양반에 대한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져 그 문학과 문학사적 의의가 규명되고 있다. 규방가사가 주로 명문대가 여성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특히 안동이 규방가사 창작의 중심지임이 논의되었다. 이와같이 각 분과 학문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안동은 ‘독립운동의 메카’이며 ‘가사문학 창작의 중심지’로 드러난다.

그런데 최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이 학계에 소개되었다³⁾. 이들 가사문학은 만주에서 창작한 ‘만주망명가사’와 만주망명자를 육친으로 두고 고향집에서 창작한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만주망명가사’ 7편⁴⁾ 가운데 5편이,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6편⁵⁾ 가운데 2편이 안동의 작가에 의해 창작되어 확인된 13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편이 안동의 작가에 의해 창작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만주망명 독립운동과 관련한 가사가 안동인에 의해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안동의 지역성과 밀접하게 관련한다고 판단했다.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은 안동의 지역성으로 철학·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립운동의 메카’라는 점과 국문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사문학 창작의 중심지’라는 점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에 해당한다.

안동 명문대가 여성의 가사 창작과 향유는 일상생활문화⁶⁾의 하나로 매

3) 최근의 논의를 통해 개별 작가의 생애가 고증되었고, 담당층이 혁신유림문중이라는 사실도 규명되었다. 작품세계의 양상, 미학적 특질, 여성의 힘, 만주 디아스포라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가사 유형에 대한 개괄적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 간의 연구논문은 다음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으므로 이 책만 소개한다.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박문사, 2014, pp.1~363. ;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박문사, 2014, 1~324쪽.

4) <분통가>, <위모사>, <조손별서>, <간운사>, <원별가라>, <신세타령>, <눈물 뿌린 이별가> 등 7편.

5) <송교행>, <답사친가>, <별한가>, <감회가>, <단심곡>, <사친가> 등 6편.

6) 각 지역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조직원리를 체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조적 사회현실을 만들어 내고 문화상징 체계를 재생산해나간다. 이러한 모든 체계는 지역인의 생활공간에 침투되어 일상생활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상이한 문화권의 일상생활을 접하게 될 때 충격을 받거나 긴장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지역학은 지역의 총체성을 인식하고자 하면서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향하는 학문의 특성 상 해당 지역인의 일상생활문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

우 뿌리 깊은 문화전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국문학계의 연구 경향이 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안동의 지역성을 다루는 담론에서 안동여성의 가사 창작에 대한 주목은 거의 없었다. 안동의 양반문화나 생활문화를 다루는 논의에서 남성의 한시나 시조문학은 다루었지만 여성의 가사문학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여성의 문학을 양반문화의 하나로 보지 않으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제간 연구성과의 교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동 양반이 ‘문화귀족’⁷⁾이라고 할 때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은 문화귀족의 면모를 보다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양반문화에 양반가 여성의 가사창작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아울러 지닌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안동의 지역성을 통합적으로 지니는 지역문화콘텐츠로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각 학문분야를 학제간으로 통합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2장에서는 안동의 지역성으로 ‘규방가사 창작의 중심지’인 점과 ‘독립운동의 메카’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을 안동의 지역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역문화콘텐츠로 제안하고자 한다.

게 된다(노명환, 「지역학의 개념과 방법론」, 『국제지역연구』3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999, 12~15쪽).

7) 川島藤也, 「안동의 대가세족 : 문화귀족의 정립을 중심으로」, 『안동학연구』제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2, 149~182쪽.

2. 안동의 지역성

1) 규방가사 창작의 중심지

그 동안 가사문학 연구자나 서지학자는 수많은 가사 필사본을 수집했다. 필사본을 수집한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규방가사를 포함한 가사문학의 대다수가 경북 지역에서 수집되었으며, 아직도 경북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집안에 가사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⁸⁾.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규방가사 자료 조사가 이 지역에서 가장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며, 규방가사연구도 주로 이 지역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찍이 영주와 봉화 지역의 규방가사 자료가 조사 수집되었으며⁹⁾, 1980년 즈음부터는 경북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가사 필사본을 수집하여 책으로 출간했다. 구미의『규방가사집』, 영천의『규방가사집』, 문경의『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 봉화의『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안동의『안동의 가사』, 울진의『울진민요와 규방가사』 등¹⁰⁾이 그것이다. ‘내방가사’ 혹은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경북지역 연구자에 의해 시작된 경향을 보여 이재수의『내방가사연구』에 이어 권영철의『규방가사연구』, 『규방가사각론』, 『규방가사 1』, 『규방가사-신변탄식류』 등의 연구서와

8) “양반가사는 그 분포가 전국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규방가사는 영남지방 양반 부녀자들의 규방 안에만 있고, 영남지방이라 하여도 주로 경상북도지방이며, 또한 이곳에도 북부지방에 편재되어 더욱 성행하였고, 남부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그 분포의 밀도가 점차 얽어져 가고 있다”(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33쪽).

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67-484쪽.

10) 구미문화원, 『규방가사집』, 대일, 1984. ; 영천시 문화공보실 편, 『규방가사집』, 영천시, 1988. ; 향토사연구소,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 문경문화원, 1994. ; 봉화문화원, 『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봉화문화원, 1995. ; 이대준,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이대욱이 편찬한 다른 가사 자료집으로는 『낭송가사집』(세종출판사, 1986)과 『낭송가사집』2(한빛, 1995)가 있다. ; 울진문화원,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울진문화원, 2001.

가사자료집이 출간¹¹⁾되었다. 최근에는 이정옥이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에 이어 영남의 가사 자료를 수집한 총 5권의 『영남내방가사』를 출간한 바 있다.

이렇게 경북지역에서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영남지역 안에서도 특히 안동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① 예안 안동 일대(158), 영주(65), 봉화(16), 영양(19), 풍산(1), 구미(42), 선산(11), 해평(8), 인동(6), 상주(14), 김천(4), 점촌(2), 예천(5), 용궁(4), 성주(31), 왜관(13), 달성(9), 대구(22), 고령(7), 칠곡(4), 창녕(6), 홍해(1), 포항(1), 영천(15), 안강(8), 울산(6), 의성(4), 영덕(3), 군위(3), 밀양(1), 기타(2), 미상(106)¹²⁾

② 안동문화권(1023) : 안동(320), 청송(39), 영양(45), 봉화(92), 영주(80), 예천(108), 상주(59), 의성(108), 군위(30), 문경(36), 울진(20), 영덕(154), 영월(2), 제천(5)

성주문화권(682) : 성주(260), 선산(62), 고령(55), 칠곡(44), 합천(16), 창녕(3), 함안(2), 금릉(48), 거창(23), 대구(99), 달성(68), 통영(2)

경주문화권(331) : 경주(58), 영천(118), 영일(44), 경산(36), 청도(24), 울산(19), 밀양(19), 양산(2), 부산(10), 김해(1)¹³⁾

①은 이재수가 수집한 총 597편이나 되는 내방가사 자료의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예안 안동 일대가 158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편수가 많음이 드러난다. ②는 권영철이 조사한 규방가사 자료의 통계치이다. 권영철은 규방가사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안동문화권, 성주문화권,

11)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1~204쪽.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327쪽. ;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1~579쪽. 권영철 편,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원, 1979, 1~648쪽. ;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1~591쪽.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연구』, 박이정, 1999, 1~388쪽. ;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제1-5권, 국학자료원, 2003(전집. 면수 생략).

12) 이재수, 앞의 책, 13쪽.

13)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앞의 책, 77쪽.

경주문화권 등 세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가사 자료가 수집된 지역의 분포 가운데 총 2036편 중 절반이 넘는 1023편이 안동문화권에서 수집되었다. 그리고 안동문화권에 속한 14개 시군구 가운데서도 안동에서 308편이나 수집되어 가사의 분포수가 경주문화권 전체의 분포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주소를 기준으로 본 향유자의 분포

안동	영덕	의성	영주	영천	경주
38	38	1	1	2	2
포항	예천	성주	타시도	합계	
4	3	2	8	99	

원적지를 기준으로 본 향유자 분포

안동	영덕	의성	청송	영양	문경	영천	포항
29	21	1	8	6	1	1	9
봉화	울진	경주	예천	성주	타시도	미상	합계
2	2	4	3	2	4	6	99

위는 영남의 내방가사를 수집하여 영인, 출간한 이정옥의 조사 자료이다¹⁴⁾. 현주소를 기준으로 본 향유자의 분포에서 안동과 영덕이 동수로 가장 많은 분포수를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향유자의 원적지를 기준으로 다시 통계를 내보면 안동이 29로 가장 많은 분포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규방가사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연구자는 안동에서 가장 많은

14)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제1-5권, 앞의 책, 15~16쪽.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일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사실 이들이 정리한 통계 수치는 규방가사 자료를 입수한 출처지나 향유자의 소속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가사의 출처지나 향유자의 소속지로 볼 때 안동이 가장 많다는 것은 가사 자료를 수집할 당시까지 이 지역에서 가사의 향유가 가장 활발했다는 점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안동이 가사 창작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같이 안동은 ‘규방가사의 대중심지이며, 또한 본고장’이었다. 특히 안동부를 중심으로 동북으로 예안, 동으로 임하(내앞), 서북으로 금계, 서쪽으로 하회로 이어지는 타원형권이 규방가사 창작과 향유의 본산지라고 알려져 있다¹⁵⁾. 예안은 퇴계 이황, 임하는 의성김씨, 금계는 학봉 김성일, 하회는 서애 유성룡의 명문대가가 오랜 세월 세거해온 지역이다. 규방가사가 명문대가의 여성들 사이에서 보다 활발하게 창작되고 향유되었음을 반증한다.

양반가 여성은 어려서는 가사를 통해 언문을 깨우치고, 성장하면서 언문 쓰기를 익혔다. 그러는 가운데 가사에 쓰인 관습적 표현구를 습득하여 한문구에 대한 교양도 늘려 갔다. 그리고 일정 나이에 이르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자신의 경험과 서정을 표현하여 자신만의 가사 글쓰기를 해나갔다. 이렇게 양반가 여성에게 ‘가사를 짓고 감상하는 일은 하나의 필수적인 교양이요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 있었다.¹⁶⁾’ 이러한 가사 창작의 전통은 양반가에서 대를 이어 전승되었으며, 양반가 여성의 일상생활문화

15) “총 2038편 중에서 안동문화권이 차지하는 것이 그 약반수로 1016편이나 되며, 특히 안동부를 중심으로 7개의 위성군이 차지하는 수량이 776편으로 이는 영남지방 전체의 약 38%이며, 안동문화권 자체 내에서의 비중도 77%나 되고, 안동부 하나만도 이의 32%가 되고 보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곳이 가장 많다는 것을 가히 수긍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안동은 규방가사의 대중심지이며, 또한 본고장이라는 느낌을 안겨 주었다.” ; “안동이 규방가사의 대중심지라면 또한 이것의 가장 중심부, 다시 말하면 放射 원점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이 씨는 안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으로 예안, 동으로 임하(내앞), 서북으로 금계, 서쪽으로 하회로 그어진 타원형권이 아닌가 한다. 이 5개 지방이 모두가 낙동강 상류의 유역에 속하며 안동분지를 중심으로 하여 펼쳐 있다.”(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앞의 책, 89~90쪽)

16) 최태호, 『교주 내망가사』, 형설출판사, 1980, 3쪽.

가 되었다. 양반가 여성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10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연들을 가사에 담았던 것이다.

양반가가 많았던 안동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규방가사 필사본이 수집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특히 안동의 양반가는 서로 혼반으로 연결되어 가사 창작의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가사 창작이 활성화된 한 양반가에서 다른 양반가로 혼인해 가고, 이것이 거듭되는 혼반으로 엮어짐으로써 안동 특유의 양반가 여성의 전통이 된 것이다. 안동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은 일제강점기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대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내려와 안동에는 가사를 경창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결성되었으며, 보존회는 2014년까지 18회에 걸쳐 전국내방가사 경창대회를 열고 있다.

2) 독립운동의 메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안동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동 유림은 일제의 강점이 노골화되던 구한말에 갑오의병을 일으켜 의병전쟁의 서막을 알렸으며, 이어 근대식 학교의 설립과 같은 애국계몽운동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경술국치를 당한 이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다. 고향에 남은 안동인은 독립운동가와 연대하거나 자치적 조직을 구성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와같이 안동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시기적으로 온전히 서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서 ‘독립운동의 메카’였다.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인 독립운동가로 추서를 받은 안동인은 314명이다. 안동의 이 숫자는 단순히 서울(291명), 부산(88명), 대구(132명), 광주(54명), 대전(36명)¹⁷⁾ 등의 수치로만 놓고

17) 독립기념관(<http://www.i815.or.kr>)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2014년 현재 독립운동가를 출신지별로 검색한 결과이다.

볼 때도 제일 많은 것이다. 더군다나 도시 규모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본다면 월등히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증거 부족으로 공식적인 추서는 받지 못했으나 독립운동활동이 확인되는 안동인은 700여명에 이른다¹⁸⁾.

나라를 빼앗긴 절대절명의 현실이 닥치자 안동의 유림지도자는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독립운동의 실천에 나섰다. 그러자 그의 지도력을 믿은 문중 전체가, 이후 일반 마을민이 유림문중의 지도력을 따라서 독립운동에 동참했다. 독립운동의 시발을 안동유림의 지도자가 마련하고 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역량과 에너지가 확산되어 가는 형상을 이루었다. 이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무려 36년간이나 지속되었지만, 조용하지만 강력했던 유림지도자의 지도력은 변함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비록 유림지도자가 독립운동을 하던 중 사망하더라도 그의 아들이나 문중인이 독립운동의 지도자적 역량을 이어나갔다.

특히 안동지역 유림문중은 국내에서의 항일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하고자 서간도로 망명해갔다. 주로 신민회와 연결된

18) 김희곤,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안동시, 2001, pp.1~325. 안동에서는 안동시 임하면 천천리에 안동독립운동기념관(현재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세우고 안동지역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다양한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펴낸 안동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도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윤정, 『사적으로 만나는 안동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13, 1~300쪽. ; 김희곤, 『김시현 항일투쟁에서 반독재투쟁까지』, 지식산업사, 2013, 1~155쪽. ; 김희곤, 『안동 내앞마을 항일독립운동의 성지』, 지식산업사, 2012, 1~240쪽. ; 권영배, 『안동지역의 의병장 열전』, 지식산업사, 1~212쪽. ; 김용달, 『일왕 궁성을 겨누는 민족혼 김지섭』, 지식산업사, 2011, 1~171쪽. ; 김희곤, 『안동사람들이 만주에서 펼친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11, 1~264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505쪽. ; 김희곤, 『안동독립운동 인물사전』, 선인, 2010, 1~490쪽. ; 박민영, 『거룩한 순국지사 향산 이만도』, 지식산업사, 2010, 1~203쪽. ; 김희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안동 선비 열 사람』, 지식산업사, 2010, 1~187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권오설 자료집』(전2권), 푸른역사, 2009, 1~1177쪽. ;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1~612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석주유고』(전2권), 경인문화사, 2008, 1~1401쪽. ; 김희곤, 『만주별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2009, 1~233쪽. ; 박결순, 『시대의 선각자 혁신유림 류인식』, 지식산업사, 2009, 1~224쪽.

명문대가가 만주망명에 동참했다. 경술국치 직후 내앞마을의 김대락과 김동삼, 법흥동의 이상룡, 하계마을의 이원일, 금계마을의 김원식, 무실마을의 류인식 등의 유림지도자는 문중인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했다. 1911년 무렵 안동과 주변지역에서 만주 망명길에 오른 인원은 100여가구 1000명에 가까운 숫자였다. 망명한 자들의 ‘3대 각오’가 ‘아사(餓死), 타사(打死), 동사(凍死)’였다¹⁹⁾고 할 정도로 망명자들은 만주 곳곳을 방랑하며 처참하고 가혹한 생활을 영위했다.

당시 동서지간이었던 김대락과 이상룡은 문중을 이끌고 울진의 황만영, 서울의 이회영 문중과 거의 동시에 만주로 망명했다. 김대락은 당시 66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1910년 12월 24일(음력)에 안동 천전리를 떠나 1월 8일에 압록강을 건너고 1월 15일에 만주 회인현 향도촌에 도착했다²⁰⁾. 부인, 아들 형식, 손자 창로, 만삭 임신부인 손부와 손녀까지 낀 집안 모두를 거느리고서였다²¹⁾. 이상룡도 일경의 감시를 피해 1911년 1월 5일에 홀로 고향집을 떠나, 뒤에 안동을 떠난 부인, 아들 이준형 내외, 손자 이병화, 동생 이봉희 부자 등과 1월 25일에 신의주에서 만나 1월 27일에 압록강 국경을 넘었다²²⁾.

주목할 만한 점은 안동 유림이 만주로 망명할 당시 전가족, 즉 여성과 어린아이의 동반 망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조선의 만주망명인들이 반

19)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2007, 지식산업사, 509~517쪽.

20) <西征錄>(안동독립운동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7~196쪽)에 의하면 김대락 일행은 1911년 1월 7일(이하 음력) 신의주에 당도해 1월 8일 압록강을 건넜다. 김대락의 조카 萬植·濟植·祚植·洪植·政植·圭植 등이 백하의 망명을 도왔다. 종질(당질)인 和植·文植·寧植, 손자인 昌魯·正魯, 종손자인 文魯·成魯 등 천전리 김씨 문중에서는 1911년부터 13년까지 50명이 넘는 인원이 만주로의 망명길에 올랐다(조동걸, 「전통 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 - 안동 천전 문중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3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373~415쪽).

21)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제5집, 안동사학회, 2000, 162쪽.

2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하권 <西徙錄>, 경인문화사, 2008, 11~55쪽. <서사록>은 이상룡이 안동을 떠나 만주에 도착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이다.

드시 여성을 동반했다는 사실은 조선총독부의 한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남자 단독으로 이동하는 중국인과 달리 한국인은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른다’는 것처럼 만주의 여하한 산간벽지라 하여도 부부가 서로 떨어짐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림문중의 망명사회에서 부부가 함께 이동한 것은 반영주를 생각한 망명, 부인의 경제적 열악성과 의존성, 한국사회 가정의 결속도가 큰 점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²³⁾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동유림의 혁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자주독립을 위한 초석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동포사회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여성도 당연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²⁴⁾.

독립운동에 참여한 유림문중의 역할은 정신적인 지주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지주 역할도 담당했다. 독립운동 자금을 충당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문중인과 마을민의 생존을 위해 유림문중은 조상전래의 전답을 처분하여 경제적인 지원자 역할도 담당했다. 해방 이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안동지역 문중의 경제적 지위를 추적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중의 재산은 축소되고 동성촌락 또한 쇠락해 갔다²⁵⁾고 한다. 이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현대인의 심금을 울리는 일이 되었으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표본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안동유림의 활발한 독립운동 활동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결과이기도 했다. 일제의 강점이 노골화되는 구한말에 조선의 유림 전체는 성리학의 정통성과 근본 원리를 재확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역사·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실천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²⁶⁾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23)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56~357쪽.

24)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 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51~55쪽.

25) 김건태, 「독립사회운동이 전통 동성촌락에 미친 영향-1910년대 경상도 안동 천전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제5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41~74쪽.

26) 한국유학사는 19세기 즉 왕조 말기에 이르러 크게 주목할 현상을 보인다. 그것은 당시 각계 학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주리사상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퇴계 학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안동지역의 유림이 적극적으로 항일활동에 나선 것은 안동의 전통적 선비정신이 이 시기에 극대화하여 발현했기 때문이다. 안동의 선비정신은 퇴계로부터 출발한다. 안동유림은 퇴계학통을 이었다는 도통론적인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원칙론적으로 대응하는 성향²⁷⁾을 보여주며, 역사·사회에 대한 실천성을 중요하게 여겼다²⁸⁾. 조선후기에도 안동유림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노력²⁹⁾’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궁리(窮理) 공부보다는 『소학』 교육을 통해 ‘일상성’과 ‘실천성’을 강조했다³⁰⁾. 이와같이 실천성을 중시하는 안동인의 선비정신이 극대화하

통을 이어 전통적으로 주리론을 주장해온 정재학파는 물론 화서학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파의 계보를 달리한 여러 학자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주리론으로 일치된 경향을 띄고 등장한 것이다. 주리론의 일치된 등장 이유는 서세 동점에 따라 우리 전통에 대한 위기의식과 서양문명과의 대결에 대비할 자체 이론의 새로운 정립 과정에서 전통사상으로서의 성리학의 정통성과 근본 원리에 대한 재확인 및 그것의 고수라는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307~308쪽).

27) 박원재, 「후기 정재학파의 사상적 전회의 맥락」, 『대동문화연구』 제58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421쪽.

28) 퇴계의 원리주의적인 주리론은 실천성과 이를 위한 마음 수양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퇴계의 원리주의적 리발설이 어떻게 역사적 변혁기에 항일에 앞장서서 자신과 문증을 희생하는 선비정신의 기반이 될 수 있었을까. 理는 ‘선의 원리’ 혹은 ‘선으로서의 義理’라는 의미를 가져 理 자체가 선하다고 믿게 된다. 퇴계가 ‘氣만 있고 理의 탐[理之乘]이 없으면, 이욕에 빠져 금수로 된다’고 한 것은 理를 선으로 보는 입장이다.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기는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에 치중하는 주기의 사고보다 理에 치중하는 주리의 사고가 더 가치 의식이 높게 된다. 그리하여 선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기에는 요청적 선을 강조 역설하기 위해 선으로서의 理를 기에 상대하여 중요시하는 현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주리에 철저하려는 의식은 그만큼 철저히 악을 피하고 선을 위하려는 의지와 상통하고, 선을 추구하려는 바로 이 점에 실천성, 즉 행위지향의 실제적 성격이 자리하게 된다.(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열음사, 1988, 209~211쪽)

29) 황병기, 「안동의 오늘을 만든 사상적 배경, 퇴계의 마음 이론」, 『안동학연구』 제12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87~92쪽.

30) 퇴계학인은 『소학』을 중시하여 일상성과 실천성을 강조했다. 『소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를 말한 성현들의 말을 편집한 책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뿌려 마당을 쓸고,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여러 성현들의 말을 편집했다. 퇴계학인은 이러한 일상성이 성인이 되는 기본이라고 했다. 일

여 발현된 것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변혁기에 수행한 독립운동이었다. 안동인은 뿌리 깊게 전해온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희생적이고 투철한 독립운동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동지역의 강한 공동체문화도 안동인의 희생적인 독립운동을 활성화 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동의 유림은 퇴계학맥을 계승하면서 그들 간의 강한 공동체를 형성했다. 공동체의식은 양반가 동성마을³¹⁾을 이룬 안동유림 문중이 문중 단위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혼반으로 생성된 안동유림 문중의 연결성과 결속력 역시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만주망명 독립운동, 사회운동, 6·10만세운동 등에서 안동인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했다.

3.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안동인이 창작한 만주망명 관련 가사로는 <분통가><위모사><간운사><조손별서><눈물 뿌린 이별가>(만주망명가사)와 <송교행><답사친가>(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등이 있다. <분통가>(김대락 작) 외의 모든 작품이 여성이 지은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안동 여성이 쓴

상적인 행위 준칙을 강조한 것은 이론이 곧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일상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앎이 그대로 행위로 이행되어야 하며, 역으로 행위에 대한 강조를 통해 그 속에 들어 있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한 것이다.(이상호, 「안동지역 퇴계학파의 소학 교육에 나타난 철학적 특징」, 『안동학연구』제7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288~302쪽.)

- 31) 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안동에는 반촌, 중인촌, 그리고 민촌을 포함하여 160여개나 되는 동성마을이 분포하고 있다(주승택, 「안동문화권 유교문화의 현황과 진로 모색」, 『안동학연구』제3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386쪽. 주승택은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김미영 연구원에 의하여 조사 작성된 보고라고 밝히고 있다). ; 하회리 풍산류씨 집성촌인 하회마을, 임하면 천전리 의성김씨 집성촌인 내앞마을, 임동면 수곡리 전주류씨 집성촌인 무실마을, 박곡리 전주류씨 집성촌인 박실마을, 가곡리 안동권씨 집성촌인 가일마을, 주하리 진성이씨 집성촌인 주촌마을, 온혜리 진성이씨 집성촌인 온계마을, 오미리 풍산김씨 집성촌인 오미마을, 망호리 한산이씨 집성촌인 소호마을 등은 대표적인 반촌 동성마을이다.(디지털안동문화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에 대해 최근 이루어진 연구성과³²⁾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위모사>의 작가는 이호성(李鎬性, 1891~1968)이다. 이호성은 이황의 후손으로 원촌마을에서 성장하여 김대락의 종질인 김문식(金文植, 1892~1972)에게 시집을 와 내앞마을 김대락의 옆집에서 살았다. 집안의 어른인 김대락이 망명함에 따라 그 뒤를 따라 남편과 함께 1912년 봄에 만주 망명길에 올랐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넌 후 강을 따라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초여름쯤에 통화현에 이르렀다. 통화현에 도착하자마자 <위모사>를 창작했으며, 당시 작가의 나이는 22살로 아직 아이가 없었다³³⁾.

<조손별서>와 <간운사>의 작가는 김우락(金宇洛, 1854~1933)이다. 독립운동가 이상룡의 부인이자 김대락의 여동생이다. 1911년 1월에 안동의 임청각을 떠나 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너 첫 기착지 회인현에 도착했다. 이후 유하현에서 머물다 만주 각지를 떠돌아 다녔다. 작가는 환갑을 맞이한 해인 1914년 경을 전후해 두 가사를 창작했다.

<눈물 뿌린 이별가>의 작가는 김우모(金羽模, 1874~1965)이다. 독립운동가 권준희의 며느리이자 <북천가>의 작가인 김진형의 손녀이다. 안동 금계마을의 의성김씨 명문가에서 성장해 권준희의 아들 권동만(權東萬, 1873~1951)과 혼인하여 가일마을에서 살았다. ‘안동의 모스크바’로 알려진 가일마을에서 성장한 작가의 둘째아들 권오헌(權五憲, 1905~1950)이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1935·6년 경 만주로 망명했다. 1년 후 맏아들 권오윤의 가족이 망명하자 작가 부부도 1940년에 자식들이 있는 만주로 들어갔다. 가일마을을 떠나 만주로 들어가면서 <눈물 뿌린 이별가>를 창작했는데, 당시 작가의 나이는 67세의 고령이었다. 이후 유하현 삼

32)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앞의 책.

33) 작가는 만주로 망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안동 내앞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3남 1녀를 두고 살다가 1941년 경 만주 안동현으로 온가족이 이주해 살았다. 그리고 해방 직전에 귀국해 사망 전까지 줄곧 내앞에서 살았는데, 마을에는 ‘원촌할매’로 알려져 있었다.

원포와 하얼빈 등지에서 살았다³⁴). 작가의 친정인 금계마을 의성김씨문중도 이미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있었는데, 작가의 친정 조카 김연환(1912년 망명)과 둘째 오빠 김원식(3·1운동 이후 망명)이 만주에 망명해 있었다.

<송교행>의 작가는 안동권씨(1862~1938)로 <위모사>의 작가 이호성의 친정어머니이다. 작가는 안동시 임하면에서 성장해 이황의 후손인 이중우(李中寓, 1861~1940)와 혼인하여 원촌마을에서 살았다. 딸이 남편과 함께 만주로 떠난 1912년 봄에 <송교행>을 썼으며, 당시 작가의 나이는 51세였다. 작가는 만주로 망명하지는 않았으나, 딸과 사위가 만주로 망명하여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경술국치의 충격으로 더 이상 고기(古基)를 지킬 뜻이 없다고 하면서 고향을 떠나 세상을 피해 살기로 결심한 남편의 뜻에 따라 28년을 객지에서 전전하다가 의양에서 사망했다. 그러는 와중에 막내아들 이열호의 독립운동활동과 그로 인한 감옥생활을 지켜봐야만 했다³⁵).

<답사친가>의 작가는 고성이씨(1894~1927)이다. 독립운동가 이상룡의 맏손녀이자 독립운동가 이준형의 장녀이며, <간운사>와 <조손별서>의 작가 김우락의 맏손녀이기도 하다. 작가는 임청각에서 성장해 류시준(柳時俊, 1895~1947)과 혼인하여 하회마을에서 살았다. <답사친가>는 조모가 써서 보낸 <조손별서>에 작가가 답하여 쓴 가사로 창작연대는 1914년경이다. 이 가사를 창작할 당시 작가의 나이는 21세였다. 작가는 경술국치 즈음에 결혼하여 1927년 죽을 때까지 비록 몸은 시집에 매어 있었지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친정식구와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한평생을 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들은 진성이씨, 내앞김씨, 고성이씨, 의

34) 이후 작가는 아들 권오현을 따라 하얼빈 송화강 가로 옮겨 생활했는데, 농사를 짓던 큰 아들 식구는 유하현에 남았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가일마을로 돌아왔다.

35) 작가의 남편은 세상을 등지고 살다가 작가가 사망한 이후 결국 만주로 갔다. 78세의 쇠약한 노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건너가 장손자의 工務所에 의탁해 살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에 만주 안동시에서 80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성김씨, 풍산류씨, 안동권씨 등 안동의 명문대가에 속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작가들은 친정이든 시집이든 자신이 속한 문중이 독립운동에 헌신함으로써 독립운동과 직·간접으로 연루된 삶을 살아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신변탄식류 가사의 전통을 이어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가사를 통해 표현했지만, 단순한 신변탄식류에 머무르지 않는았다. 고국을 떠나올 때의 슬픔과 비장함, 고국에 두고 온 친정어머니, 형제, 손녀, 마을동기들을 그리워하는 사무침, 서간도에서 고생할 육친에 대한 그리움 등의 서정뿐만 아니라 만주망명 경험과 만주생활의 서사나 독립운동의지의 고취와 남녀평등론과 같은 교술도 아울러 서술했다.

이들 작가는 비록 남성의 뜻을 수동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여성이었지만 독립운동의지만은 남성 못지않은 것이었다. 이들 여성 작가의 역사사회 인식은 일제가 강점한 나라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① 우리나라 종묘사직 외인이게 사양하고 / 강손은 의구히되 풍경은 글너시니 / 불승할스 우리동포 사라날길 전혀업소 / 가빈안예 고기갓고 푸도싼예 희싱긋치 / 살시리고 비골과도 세금독촉 성화갓고 / 아니히도 증녕가고 다흐즈니 굴머죽고 / 학정이 니러흐니 살스람 뉘가잇소 / 집집의 ○○계견 겨이라도 쥬제마난 / 저눈의 우리스람 즘싱만 못혀여서 / 겨도츠 아니쥬고 부리기만 엄을너이 / 수비덕 한소리에 상흔실빅 놀나죽고

② 물건너 왜놈들이 그틈타서 건너오네 / 오역과 칠적들과 합세하여 나라 뺏어 / 정치를 한다는게 백성이 도탄이라 / 서럽도다 서럽도다 망국백성 서럽도다 / 아무리 살려해도 살수가 바이없네 / 충군애국 다팔아도 먹을길 바이없고 / 효우를 다팔아도 살아날길 바이없고 / 서간도나 북간도로 가는사람 한량없네

③ 오흠다 此歲月은 天運이 盡하민지 / 國運이 다하민야 흥망이 무슈흐니 / 인연으로 어이하라 국과군망 이원일고 / 신민에 천봉지통 日月도 無光하다 / 추로東方 君子國에 호중天地 되단말가 / 五千万年 우리나라 億万世上 長春으로 / 堯舜갓흔 임군으로 계계승승 나실적에 / 여일지승 여월지향 여죽일월

하시기을 / 티산갓치 밋어써니 무관문물 잇는지동 / 水上부평 덕여잇고 三千里
 里 져江山은 / 타국압제 되어구나

①은 <위모사>의 서술이다. 경술국치 직후 식민지 조국의 상황을 일제의 학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 우리 동포가 가배(?) 안의 물고기나 푸주간의 짐승과 같다, 험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는 일제의 세금 독촉에 징역을 살거나 굶어죽는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는 겨라도 주지만 왜놈은 조선인에게 겨조차 주지 않고 부러먹기만 한다, 수비대의 소리에 우리 동포는 놀라 죽어 나간다고 했다. 고상한 한문어투를 버리고 순우리말 어투를 사용하여 나라의 현실에 대한 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②는 <눈물 뿌린 이별가>의 서술이다. 물을 건너 왜놈들이 건너와서 오역·칠적과 합세하여 이 나라를 빼앗았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그 동안 지켜왔던 충군애국이니 효우니 하는 것을 다 팔아도 살아날 수가 없다, 살 수 없는 조선인 중에서 간도로 이주해 나가는 이가 수도 없이 많다고 했다. ③은 고국에서 쓴 <답사친가>의 서술이다. 유교적 담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타국압제’가 된 나라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개탄했다.

4. 맺음말 : 지역문화콘텐츠 제안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의 창작은 안동 양반가 여성의 뿌리 깊은 가사 창작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김대락이 만주에서 <분통가>를 쓸 때 부인과 여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전후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³⁶⁾서라고 창작의

36) 『白下日記』1912년 9월 27. “국문으로 <분통가> 한 편을 지어 비분한 뜻을 나타내려 한다. 또한 부인과 여자들로 하여금 나의 곤란 중 겪었던 전후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대략 사가의 필법을 모방하여 적었으므로 이 또한 나의 본령이 있는 것이다.(以國文作憤痛歌一篇以瀉悲憤之意而使婦人女子亦知我前後困難中經歷畧倣史家筆法此亦吾本領所在也)”

도를 밝힐 정도로 당시 안동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과 향유는 매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만주로 망명한 안동의 여성들이 고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했음은 다음의 <간운사>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명문숙여 나의효부 입문지초 그기로다 / 산슈두고 자을짓고 절제두고 글을지어 / 심심홀적 을퍼내여 잠전으로 위로하니 / 존중하신 노군즈는 시스럽다 증을내고 / 기화보벽 손아들은 노리한다 조롱하니 <간운사>” 이 구절은 만주에서 가족과 단란한 밤을 보내는 작가가 며느리와 함께 가사를 지어 낭송하곤 했던 사실을 읊고 있다³⁷⁾.

한편 이들 가사의 창작은 안동유림의 맹렬한 독립운동 의지와 희생적인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안동의 만주망명인들은 여성을 동반하여 감으로써 안동 여성들은 당대 여성들이 겪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독립운동의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안동의 여성 작가들은 독립운동의식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도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은 안동이 가사 창작의 중심지라는 점과 안동이 독립운동의 메카인 점이 결합하여 창작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은 안동의 특수한 두 가지 지역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역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안동의 양반문화를 다루는 자리에서 여성의 가사창작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영남학』이나 『안동학연구』에 그 동안 실린 논

37) “일등명손 즈진들은 동동축축 효순호고 / 명문숙여 나의효부 입문지초 그기로다 / 산슈두고 자을짓고 절제두고 글을지어 / 심심홀적 을퍼내여 잠전으로 위로하니 / 존중하신 노군즈는 시스럽다 증을내고 / 기화보벽 손아들은 노리한다 조롱하니 / 단인하던 내마음이 취광거인 되었구나 / 어와 우습도다 세상번복 우습도다 / 상되 홀끼 무어시나 빅세히로 하다가서 / 천명일월 보오리라” 여기서 ‘孝順한 子姪들’은 아들 李濬衡과 조카 李衡國·李運衡·李光民·李光國 등을, ‘존중하신 老君子’는 이상룡을, ‘奇貨寶璧 孫兒들’은 손자 李炳華와 그의 동생들을 말한다. 며느리가 글 [가사]을 짓고 심심할 때 읊어주어 자신을 위로하곤 했는데, 그러면 남편은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은 가사 낭독이 신기했던지 노래한다고 놀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와 며느리는 만주에서도 고국에서처럼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여성의 일상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영위했다.

문들을 살펴보면 안동 양반가의 가사문학을 다룬 논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안동학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주제를 다룬 논의에서도 가사문학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³⁸⁾. 안동의 양반문화에 대해 총체적으로 서술한 『안동양반의 생활문화』에서도 남성의 국문시가만 다루었을 뿐 여성의 가사문학은 어느 한 군데서도 언급하지 않았다³⁹⁾. 앞서 경북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 출간한 가사자료집을 살펴본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경, 봉화, 울진 등의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가사를 민요와 함께 수집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층 면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방가사의 작가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규방가사를 서민문학인 민요와 같이 다룬 것이다. 가부장제적 전통사회에서 ‘양반’하면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안동의 양반문화에서 명문대가택 중부의 일상, 제상차림, 전통음식, 전통예절 등과 같은 여성의 일상생활문화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양반가 여성의 일상생활문화인 가사의 창작과 향유도 양반문화에 당당하게 편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가사문학은 주류문학에 편입되지 못한 주변문학에 불과했다. 하지만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은 글쓰기를 일상화한 전통시대의 귀중한 문화 현상이기도 했다. 현대에 이르러 일반인은 전문직 작가의 글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전락하여 일상적인 글쓰기 문화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안동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일상적인 글쓰기 문화

38) 그 동안『영남학』(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간)이나 『안동학연구』(한국국학진흥원 간)에 실린 논문이 만만치 않게 많지만 가사문학에 관한 것은 단 한 편(백두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종욱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 『영남학』제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419~470쪽)뿐이다. 그나마 여기서 다룬 가사도 남성이 쓴 것이다. 『안동학연구』제8집에서는 안동학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주제를 다루었다.

39) 『안동양반의 생활문화』(임재해 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1~559쪽)에서는 안동양반의 성격과 활동, 안동양반의 일생과 삶, 안동양반의 가족과 친족생활, 안동양반의 의식주생활, 안동양반의 제사활동, 안동양반의 일상예절, 안동양반의 경제생활, 안동양반의 풍류와 놀이 등을 다루었다. ‘안동양반의 풍류와 놀이’에서 안동양반의 ‘국문시가’를 다루고 있지만 여성의 가사문학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를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를 지닌다. 안동의 양반가가 남성은 한시 창작을, 여성은 가사 창작을 일상적 글쓰기문화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반 남성과 여성의 일상적 글쓰기문화는 양반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은 문학 텍스트이다. 그리하여 이 문학 콘텐츠가 안동의 지역성을 총화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축제의 현장에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문화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문학 콘텐츠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동의 지역성과 문화를 알리는 것으로 축제의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안동에서는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을 지역문화콘텐츠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윤정, 「백하 김대락의 민족운동과 그 성격」, 『백하 김대락 선생-추모 학술강연회』, 안동향교·안동청년유도회, 2008, 27~42쪽.
-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 담당층 혁신유립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51~55쪽.
-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박문사, 2014, 1~363쪽.
-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박문사, 2014, 1~324쪽.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327쪽.
-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1~579쪽.
- 권영철 편,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원, 1979, 1~648쪽.
-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1~591쪽.
- 김건태, 「독립·사회운동이 전통 동성촌락에 미친 영향-1910년대 경상도 안동 천전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제5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41~74쪽.
- 노명환, 「지역학의 개념과 방법론」, 『국제지역연구』3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999, 12~15쪽.
- 독립기념관(<http://www.i815.or.kr>)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디지털안동문화대전(<http://andong.grandculture.net/>)
- 박원재, 「후기 정재학파의 사상적 전회의 맥락」, 『대동문화연구』제58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421쪽.
- 백두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중욱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 『영남학』제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419~470쪽.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56~357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하권 <서사록>, 경인문화사, 2008, 11~55쪽.
- 안동독립운동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7~196쪽.

- 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열음사, 1988, 209~211쪽.
- 이상호, 「안동지역 퇴계학파의 소학 교육에 나타난 철학적 특징」, 『안동학연구』제7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288~302쪽.
-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307~308쪽.
-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1~204쪽.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연구』, 박이정, 1999, 1~388쪽.
-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제1-5권, 국학자료원, 2003(전집. 면수 생략).
- 이철원, 「지역학의 개념과 현재성」,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6, 4~5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67-484쪽.
- 임재해 외, 『안동양반의 생활문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1~559쪽.
- 조동걸, 「전통 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 - 안동 천전 문중의 경우」, 『대동문화연구』제3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373~415쪽.
-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제5집, 안동사학회, 2000, 162쪽.
- 주승택, 「안동문화권 유교문화의 현황과 진로모색」, 『안동학연구』제3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386쪽.
- 川島藤也, 「안동의 대가세족 : 문화귀족의 정립을 중심으로」, 『안동학연구』제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2, 149~182쪽.
- 최태호, 『교주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0, 3쪽.
- 황병기, 「안동의 오늘을 만든 사상적 배경, 퇴계의 마음 이론」, 『안동학연구』제12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87~92쪽.

<Abstract>

Locality of Andong and Gasa relating to Manchuria Exile

– Proposition of one Local Culture Contents

Ko, Soon-hee

Recently as Gasa relating to Manchuria Exile 13 pieces were identified. Among 13 pieces, the gasa to create by Andong peoples are 7 piec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hibit Gasa relating to Manchuria Exile as the contents which well reveal the locality of Andong.

Some researchers collected manuscripts of female Gasa. According to their statistics, manuscript Gasa materials are the most collected in Andong region. Andong was the center region to create and enjoy Gasa. Gasa creation of Andong women was one of the everyday life culture. But in the meantime studies on the nobility culture of Andong did not notice it.

Andong is the famous city that historically there are many independence movement persons. The scholars spirit of Andong nobility have performed the dramatic role in the Colony Period. Especially after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ong nobility have exiled to Manchuria, have involv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re. The point worth noting is that Andong nobility have gone together in Manchuria with women.

The female writers of these Gasa relating to Manchuria Exile are members of famous Andong nobility. Their life have dramatically changed because their family men had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y have expressed their new life by Gasa.

Gasa relating to Manchuria Exile could be created in the condition of the combining two locality of Andong discussing earlier. Therefore Gasa relating to Manchuria Exile could be local culture contents to reveal comprehensively locality of Andong. And because of that these women are members of Andong nobility, their Gasa creation culture need to be incorporated in Andong nobility culture.

Key words : Andong, Locality, Gasa, Manchuria Exile,
Independence-movement, | Local-culture-contents

투고일 : 2015년 1월 15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